

1930년대 『동아일보』 신인문단 연구

— ‘신인문학콩쿨’을 중심으로

손 동 호*

[국문초록]

1930년대는 일제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조선 문단이 극도로 침체된 때였다. 이러한 문단 침체를 극복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인대망론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신인작가들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면을 제공하겠다고 ‘신인문학콩쿨’을 시행하였다. 신문사 내부적으로는 무기정간 이후 신문 복간과 동시에 문예면 확대에 힘쓰고 있었다. 하지만 장편소설과 달리 단편소설은 작품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도된 콩쿨 제도는 문단사적으로도 당시 문단에서 전개된 세대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콩쿨에 입선된 작품은 주로 이성간의 애정문제나 청년들의 방황과 타락상을 다루었다. 이는 신문에 연재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었으며, 일체의 정치적 발언이 금지된 상황 하에서 검열

*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제어: 동아일보, 신인문학콩쿨, 세대론, 기성작가, 신인, 등단제도, 등용문, 단편소설
東亞日報, 新人文學콩쿨, 世代論, 既成作家, 新人, 文壇制度, 登龍門, 短編小說

로부터 가장 안전한 소재를 취한 결과였다. 기성세대는 신인작가에게 창조와 개성을 요구했으나 신인작가들은 기성세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기성작가의 작품을 모방함으로써 출구를 모색하기도 했다. 콩쿨의 심사위원들은 작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 방법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기성세대가 신인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신인들의 작품을 고의적으로 가혹하게 비평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였다.

신인문학콩쿨의 문단사적 의미는 첫째, 신인작가의 등용문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모집 공고문에서 밝힌 대로 ‘신인이 열망하던 문단에의 등용문’을 자임하며 김영석, 김이석, 조남영 등의 신인을 발굴함으로써 신인의 문단 등단에 기여하였다. 둘째, 세대론에서 촉발된 신인론을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콩쿨 제도로 실현한 점이다. 침체된 문단을 타개하기 위해 신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문단의 요구를 공론화하고 이를 받아들여 콩쿨이라는 형식으로 제도화한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 서론

1938년 7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동아일보』 학예면에는 ‘제1회 신인문학콩쿨’ 모집 공고가 실린다. 공고문에 따르면 신인문학콩쿨은 정체된 문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신인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단이 단 한 사람의 신인조차 발굴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그 원인을 권위 있는 발표기관의 결여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아일보는 신인들에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하겠다고 해당 콩쿨을 시행했다. 모집 규정에 따르면 모집 종목은 단편소설과 희곡 두 부문이었으며, 신문 10회 연재분 정도인 200자 원고지 100매 분량을 요구하였다. 모집 기일은 9월 10일까지 본사 도착이라 명시하였다. 상금은 입상 제1석 100원, 제2석 30원, 입

선 8편에 대해서는 박사진정(薄謝進呈)하겠다고 밝혔다. 1938년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작에 대한 상금이 50원인 것에 비하면 2배가 되는 액수를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본지는 때때로 이런 기회를 신인제군을 위하여 만들 것을 약속해 둔다.”¹⁾는 말을 통해서 신문사의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기획이 일회적이 아니며 신인들의 작품을 모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분명히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제도 시행에의 의지는 ‘신인문학콩쿨’이 아니라 ‘제1회 신인문학콩쿨’²⁾이라 명시한 부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신인문학콩쿨 모집 공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³⁾

- 1) 제1회 신인문학콩쿨 공고, 『동아일보』, 1938.7.29. 석간 3면.
- 2) 「제1회 신인문학콩쿨 당선발표」, 『동아일보』, 1939.7.5. 석간 3면. “所期の 傑作을 얻지 못한 것은 遺憾이라 아니 할 수 없으나 이것이 第一回인 만큼, 第二回, 第三回를 거듭하는 동안에 本社와 文壇의 期待에 어그러지지 않는 快作이 나올 것을 믿어 疑心치 않는다.(…) 本社에서는 繼續해서 第二回 新人文學콩쿨 作品 募集에 着手할 것이다.”
- 3) 『동아일보』, 1938. 7.29., 7.30., 8.3., 8.19., 8.25., 8.31., 9.1., 9.2., 9.3., 9.8., 9.9., 9.10. 第一回 新人文學콩쿨

新인이 熱望하던 文壇에의 登龍門

돌아보건대 昨今の 文化運動은 情勢以上으로 停頓되었던 感이 없지 않다. 文壇도 이 반갑지 안흔 現狀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勿論 이는 不可避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타고해서 그 어떤 打開策을 講究해보지도 안흔 수는 없지 안흔까. 아마도 다른 文化部門이 停頓되었었다 하더라도 文學의 領域 안에서라도 그 어떤 打開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本紙가 『新人文學콩쿨』을 企劃한 所以로 實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에도 文壇에서는 여러 가지로 新인이 物議되어왔었다. 或은 新人論이 나왔고 新人待望論이 論議되어 왔거만 아직 最近 數三年 間 文壇은 單, 한 사람의 新人도 맞어드리지를 못했었다. 여기에는 勿論 여러 가지 原因이 잇겠지마는 무엇보다도 權威있는 發表機關의 缺如가 그 가장 큰 原因이 아니었을까? 하는 點이 本社의 着目點이다. 新人諸君은 깊이 간직해 두었던 力作으로 文壇을 驚愕케 할 조흔 찬스를 만들라. 本紙는 때때로 이런 機會를 新人諸君을 僞하여 만들 것을 約束해 둔다. 規定一般.

種目 一, 短篇小說(新聞 十回分 二百字原稿用紙 百 枚)

二, 戲曲(特別한 制限은 안흐나 新聞 十回分임을 豫想할 것)

콩쿨 시행 결과 단편소설 9편과 희곡 1편이 예선에 당선되어 신문에 연재된다. ‘신인이 열망하던 문단에의 등용문’을 자처했듯, 신인을 발굴하여 침체된 문단을 환기하고자 했던 신문사의 의도대로 나름의 성과를 낸 것이다. 따라서 동아일보사가 시도했던 신인문학콩쿨은 문단의 신인을 등용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문학의 저변 확장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으며, 당시 문인의 등단 원리나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 매체뿐만 아니라 개별 잡지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근대 시기 등단 제도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를 축적했다.⁴⁾ 이들 연구는 신춘문예를 등단 제도의 완성으로 놓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하지만 등단 제도는 비단 신춘문예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으며, 신인문학콩쿨도 그중 하나에 해당한다. 특히 신인문학콩쿨은 1930년

期日	九月十日 本社 到着
資格	一, 各 新聞 雜誌의 當選作家 二, 注目할 만한 作品을 二 篇以上 發表한 者 三, 既成作家의 推薦狀을 携帶한 者
賞金	入賞 第一席 百圓, 第二席 三十圓, 入選 八 篇 各 薄謝進呈 (應募된 作品中에서 十篇을 豫選 이를 紙上에 發表함.)
方法	一, 入賞作品은 文壇의 現役作家와 評論家로서 組織하는 審査會에서 이를 決定함 二, 審査員은 追後 發表함 東亞日報社學藝部

- 4) 김춘희(2001), 「한국 근대문단의 형성과 등단제도 연구」, 동국대 석사 논문; 김석봉(2004),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제도화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6; 김석봉(2006), 「식민지 시기 『동아일보』 문인 재생산 구조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사 연구』; 전은경(2006),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 독자층의 형성과정 연구」, 『현대소설연구』 29; 이희정(2011), 「1920년대 『매일신보』의 독자문단 형성 과정과 제도화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33; 이희정(2011),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연구(1)」, 『어문학』 112; 이희정(2011),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연구(2)」, 『현대소설연구』 48; 손동호(2014), 「『동아일보』 소재 ‘독자문단’ 연구」, 『한국민족문화』 53; 손동호(2016),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연구」, 『근대한국학연구』 21 참조.

대 당시, 신문이나 잡지 등 주요한 매체 중에서 『동아일보』만 유일하게 시행한 제도였다. 신인문학콩쿨은 모집 공고에서부터 예선과 본선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리고 당선작과 작품에 대한 비평까지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1930년대 등단 제도의 수준을 가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당시 문단에서 전개된 세대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시도된 바 없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인문학콩쿨의 시행 배경과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 해당 콩쿨 입선작의 내용과 특질을 분석한 후, 신인문학콩쿨의 문단사적 의미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

2. 신인문학콩쿨의 시행 배경과 전개 과정

신인문학콩쿨 모집 공고문에는 ‘신인이 열망하던 문단에서의 등용문’이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강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신문사가 신인 발굴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권위 있는 발표기관으로 자처했음을 알 수 있다. 모집 분야는 문학의 제(諸) 장르를 포괄했던 신춘문예와 달리 단편 소설과 희곡에 집중하였다. 모집 기간 역시 한 달 남짓한 기간⁵⁾에 불과했다. 가장 특이한 지점은 응모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점이다. 응모 자격은 각 신문 잡지의 당선작가, 주목할 만한 작품을 2편 이상 발표한 자, 기성작가의 추천장을 휴대한 자, 이상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신인문학콩쿨은 단편소설과 희곡 분야의 신인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가 된다. 그렇다면 신문사가 이러한 콩쿨 제도를 시행했던 배경과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5) 처음 공고문이 실린 7월 29일부터 계산하면 9월 10일 마감일까지는 한 달 남짓이었다.

신문사가 콩쿨 제도를 시도한 것은 1930년대의 국제적 정세와 국내적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제는 군사적 파시즘을 강화해 나갔다. 1931년과 1934년 두 차례에 걸친 검거사건과 1935년 카프의 해산은 사회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표적인 탄압이었다. 1936년 ‘조선 사상범보호관찰령’과 1937년 7월 21일 ‘중앙정보위원회’ 발족은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억압하고 조선인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38년 4월에는 시국에 대한 인식과 선전에 총동원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어 일체의 문화운동이 위축되기에 이른다.⁶⁾ ‘신인문학콩쿨’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 “다른 문화부문이 정돈되었다 하더라도 문학의 영역 안에서라도 그 어떤 타개책”⁷⁾을 강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신인들의 작품을 모집, 발표함으로써 문단의 정체 상황을 환기하려는 의도로 시행된 것이다.

1930년대의 외부 정세와 더불어 신문사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다. 1936년 8월 26일, 동아일보는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네 번째 무기정간을 당한다. 이 무기정간은 손기정 선수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를 없앤 것을 구실로 정간에 이르렀으며, 일제의 언론 탄압이 전면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무기정간은 1937년 6월 3일 복간되기까지 약 9개월 간 이어진다.⁸⁾ 일제의 파시즘이 노골화되며 객관적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신문사

6) 전상숙(2004), 『일제 파시즘기 조선지배 정책과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124; 방기중(2004),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해안,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2004),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해안,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2005), 『일제 식민지배의 구조와 성격』, 경인문화사 참조.

7) 제1회 신인문학콩쿨 공고, 『동아일보』, 1938.7.29. 석간 3면.

8) 『사고(社告)』, 『동아일보』, 1937.6.3. 석간 1면. “曩者 本報에서 日章旗 마크 抹消事件을 惹起하여 當局의 忌諱에 觸하게 된 것은 實로 恐縮不堪하는 바이다. 이제 當局으로부터 發行停止解除의 寬大한 處分을 받아 今後부터 一層 謹慎하여 更히 如斯한 不祥事를 惹起치 安토록 注意할 것은 勿論이어나와 紙面을 刷新하고 大日本帝國의 言論機關으로서 公正한 使命을 다하여써 朝鮮統治의 翼贊을 期하리하오니 讀者諸

는 정치, 사상적인 문제보다는 문예에 관심을 기울이는 쪽으로 출구를 모색하기에 이른다. 신문사는 복간과 동시 적극적으로 문예면 확장을 위해 노력한다. 이는 신문사의 사세를 무기정간 이전으로 회복하려는 자구책으로도 볼 수 있다.

신문은 복간일인 6월 3일부터 세 편의 장편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다.⁹⁾ 동아일보가 정간 처분을 당하던 때에 윤백남, 장혁주, 김말봉의 장편소설이 연재되었으나 연재가 중단된 지 9개월이 넘어 더 이상 연재하지 않고 대신 ‘새롭게 좋고 재미있는 소설’ 세 편을 시작하여 지면의 면목을 일신하는 동시에 ‘독자들의 흥미’를 새로 돋우려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재된 작품이 이규희의 「피안(彼岸)의 태양(太陽)」(1937.6.3.~10.23.), 이무영의 「명일(明日)의 포도(鋪道)」(1937.6.3.~12.25.), 전무길의 「적멸(寂滅, 1937.6.3.~7.6.)이었다. 이 중에서 이규희의 작품은 신문사가 500원의 사례금으로 공모한 것이다. 아울러 소설 삽화진도 강화하여 전공과 화풍을 고려하여 연재되는 소설에 가장 적당한 화가를 택해 삽화를 위탁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노심산, 안석영, 흥득순이 각각 「피안의 태양」, 「명일의 포도」, 「적멸」의 삽화를 맡게 되었다. 신문사는 장편소설의 연재를 시작하는 동시에 상금 200원의 영화소설 현상공모를 시행했다. 공모 결과 최금동(崔琴桐)의 「애련송(愛戀頌)」이 1937년 10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연재되었다. 이는 신문이 문예면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예물에 대한 현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편소설과 희곡도 예외가 아니었다.

단편소설은 장편소설과 달리 복간 초기에는 연재된 작품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다가 1938년부터 ‘주간단편(週間短篇)’이라는 기획 하에 연재되기 시작한다. 1938년 2월 15일 조벽암의 「유전보(流轉譜, 1938.2.15.~1938.2.23.) 연재를 시작으로 한인택의 「염마(閻魔, 1938.2.24.~

체계서는 特히 雕梁하시와 倍前 愛護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밑줄은 인용자).

9) 三小說 同時連載, 『동아일보』, 1937.6.3. 석간 7면.

1938.3.4.), 채만식의 「치숙」(痴叔, 1938.3.7.~1938.3.14.), 이규희의 「외로운 사람들」(1938.3.15.~1938.3.23.), 이무영의 「불살른 정열의 서(書)」(1938.3.25.~1938.3.30.), 엄홍섭의 「숙직사원」(宿直社員, 1938.3.31.~1938.4.7.), 최정희의 「산제」(山祭, 1938.4.8.~1938.4.16.), 유진오의 「창랑정기」(滄浪亭記, 1938.4.19.~1938.5.4.), 이효석의 「막」(幕, 1938.5.5.~1938.5.14.), 주요섭의 「의학박사」(醫學博士, 1938.5.17.~1938.5.25.)가 지속해서 문예면에 실렸다. 이러한 기성작가의 단편소설 연재는 1939년 5월 24일 안희남이 「계절」을 발표하기까지 약 1년 간 공백에 놓인다. 신인문학콩쿨 예선작품이 연재되는 1938년 11월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약 6개월 간 단편소설이 연재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것이다. 이러한 문예면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신문에 바로 연재할 수 있는 작품을 수급하기 위해 신인문학콩쿨을 시행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인문학콩쿨 작품 모집 기간이 불과 한 달 정도였다는 점과 “신인 계군은 깊이 간직해 두었던 역작으로 문단을 경악케할 좋은 찬스를 만들라.”¹⁰⁾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인문학콩쿨은 신인작가들의 완성작을 최대한 단기간에 모집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주목할 만한 작품을 2편 이상 발표한 자’나 ‘각 신문 잡지의 당선 작가’ 등의 까다로운 자격조건은 이들의 작품 수준을 보증할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특히 ‘기성문인의 추천장을 휴대한 자’라는 조건은 해당 콩쿨이 신인 발굴의 목적도 띄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신인 발굴을 목적으로 내세운 신춘문예 현상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적의 제도를 시행한 까닭은 단편소설과 희곡 두 장르의 검증된 작품을 최대한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춘문예의 경우 본선 당선작만 지면에 연재하고, 예선 당선작은 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인문학콩쿨은 예선에 오른 10편의 작품을 모두 연재하였

10) 「제1회 신인문학콩쿨」, 『동아일보』, 1938.7.29.

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신인문학콩쿨은 신인들의 작품 모집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콩쿨 본선에서 각각 제1석과 제2석을 차지한 김영석과 김동규는 콩쿨 시행 이후에 해당 신문에 또다시 작품을 연재한다. 결국 문단 침체를 극복하려는 시대적 요구와 신문사 내부의 단편소설 수급의 필요성이 신인문학콩쿨의 시행 배경인 것이다.

신인문학콩쿨은 1938년 9월 10일까지 모집 공고를 신고, 같은 해 11월 3일에는 신인문학콩쿨 예선발표 특집 기사를 신는다. 여기에는 예선 통과 작 10편을 발표한 후, ‘예선 후기’, ‘심사위원결정’, ‘입선작가들의 감상’, ‘콩쿨에 보내는 찬사’ 등의 기사를 함께 실어 흥행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예선 결과 9편의 단편소설과 1편의 희곡이 발표되었다. 앞서 콩쿨 응모 자격을 언급하며 ‘각 신문 잡지의 당선작가’에게 응모할 자격을 준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당선자는 모두 세 명으로 정비석은 『조선일보』, 곽하신과 한태천은 『동아일보』 당선작가로 소개된다. 그런데 정비석은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졸곡제』가 당선된 적이 있으므로 ‘각 신문 잡지의 당선작가’는 모두 『동아일보』 출신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신문사가 자사(自社) 현상문예 출신작가를 우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성작가의 추천장을 휴대한 자’가 응모 자격이었기 때문에 예선 당선작을 발표할 때, 이들 작품을 추천한 추천인도 함께 공개했다. 아직 최종 본선이 치러지지 않았음에도 추천인을 공개한 것은 추천인의 권위를 활용하여 해당 제도의 흥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1939년 7월 5일에는 본선 결과가 발표되는데, 김영석이 제1석, 김동규가 제2석을 차지하게 된다. 본선 심사위원은 이기영, 유진오, 현진건, 유치진, 최재서, 임화, 이태준, 이무영으로 현역평론가와 작가 7명 그리고 동아일보 본사 측 인원으로 구성되었다.¹¹⁾ 1939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임화가 심사위원을 대표해 심사경과를 보고했다. 이처럼 신인문

11) 「제1회 신인문학콩쿠르 당선발표」, 『동아일보』, 1939.7.5.

학콩쿨은 모집 공고에서부터 예선과 본선 발표, 그리고 심사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했다. 콩쿨 시행 절차와 각 절차별 결과를 지면에 공개한 의도는 해당 제도의 공정성을 확인시켜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예선에 통과한 작품을 신문지상에 발표한 후에 다시 문단의 현역작가와 평론가로 조직한 심사회에서 입장을 결정한 것은 신문사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신인문학콩쿨은 형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그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한 제도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3. 신인문학콩쿨 입선작과 그 특질

앞에서 언급했던 신인문학콩쿨 예선 입선작을 신문 연재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동아일보』 제1회 신인문학콩쿨 예선 입선작 목록

연재일	추천인	작가	작품명
1938.11.25.~12.6.	유진오	김영석(金永錫) ¹²⁾	비둘기의 유혹(誘惑)
1938.12.8.~12.19.	안희남 ¹³⁾	원대연(元大淵)	명화(明花)
1938.12.21.~12.31.	이효석	김이석(金利錫)	부어(腐魚)
1939.1.21.~2.3.	이기영	이재춘(李在春)	주막(酒幕)
1939.2.5.~2.23.	엄홍섭	이지용(李地用)	화장인간(化粧人間)
1939.3.1.~3.17.	前당선(조선)	정비석(鄭飛石)	귀불귀(歸不歸)
1939.3.19.~4.3.	백철	조남영(曹南嶺)	익어가는 가을
1939.4.6.~4.18.	입화	김동규(金東奎)	파계(破戒) ¹⁴⁾
1939.4.20.~5.6.	前당선(동아)	곽하신(郭夏信)	안해
1939.5.7.~5.19.	前당선(동아)	한태천(韓泰泉)	(희곡)매화포

12) 1938년 11월 3일, ‘입선작가들의 감상’에는 김영석 대신에 박산(朴山)으로 소개되

[표 1]에 의하면 김이석의 『부어』 연재가 끝나는 1938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이재춘의 『주막』이 연재되는 1939년 1월 21일까지 20여 일의 연재 공백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이 발생한 이유는 해당 시기에 신춘문에 당선작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1939년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 당선작은 김몽(金夢)의 『만세환』(萬歲丸)으로 1939년 1월 7일부터 1월 19일까지 연재되었다. ‘신인문학콩쿨’의 입선작과 신춘문에 당선작의 교차 연재는 신문사가 단편소설 수급에 매우 고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신인들의 작품 발굴에 대한 노력은 신문사 내부의 단편소설 수급의 필요성이 신인문학콩쿨의 시행 배경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신인문학콩쿨 예선 입선작 중에서 본선 제1석을 차지한 김영석의 『비둘기의 유혹』은 청년의 방황과 비극을 그렸다.¹⁵⁾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추적한 이 작품은 주인공이 정신병에 걸린다는 결말로 이어지며 그 어떤 희망도 보여주지 못한다. 본선 심사위원이었던 임화는 이 작품이 소설로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정(詩情) 때문에 1석으로 뽑았으며, 주인공의 정신적 방황을 리드미컬하게 그려냈다고 평가했다.

고 있다.

- 13) ‘신인들의 감상’에서 원대연은 자신의 작품을 이원조 씨가 추천해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14) 1938년 11월 3일 신인문학콩쿨 예선발표 특집 기사에는 김계명(金鷄鳴)의 『破門』으로 소개된다.
- 15) ‘나’는 작문과 도화에 소질이 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동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다가 거지라고 놀림을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Y중학을 중퇴한다. ‘나’는 외로움과 ‘센치’가 사무칠 때마다 낙산에 올라 공상하는 일로 위안을 삼는다. 구직활동을 시작하지만 번번히 실패하다 결국은 취직을 포기한다. 한번은 산에 갔다가 공교롭게 그곳으로 소풍나온 Y학교 생도들과 선생과 마주친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비판하며 이때부터 현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어느날은 건너방 정옥이 집을 비운 사이, 그녀가 기르던 비둘기를 새장에서 꺼내 날려보낸다. 이후 사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욱 깊어지고 점점 현실과 괴리된다. 급기야 과대망상과 강박관념이 겹친 우울성정신병에 걸려 형에 의해 요양소로 보내진다.

그는 계속해서 “뇌 속에 사무친 외로움과 센치가 비둘기처럼 뜨드기며 날라가 버리는 날 나는 세상사람들과 정다워지리라.”라는 묘사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적 분위기가 이 작품에 하나의 성격을 만들어 주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정이 청신하지만 문단의 새 발견, 새 재산이 되지 못한다며 산문성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사적이 아닌 양식은 구상의 완전한 소설적 전개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¹⁶⁾

본선 제2석에 오른 김동규의 『파계』는 아내와 딸의 죽음 앞에 무력한 한 가장의 모습과 성당 신부의 탐욕과 위선을 대조하여 후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¹⁷⁾ 임화는 이 작품이 『비둘기의 유혹』에 비해 훨씬 소설다운 조건을 갖춘 작품이라 평가하며, 객관적인 사태의 요구와 각개의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인공을 운명적으로 어느 결말에 도달하도록 구성했다고 했다. 객관적 수법을 구사하여 작품을 구성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차석에 머문 이유는 관념을 존중한 나머지 작품의 형상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보았다. 주인공의 행동에는 많은 계기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비약시킨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빠른 템포와 장면의 돌연한 변화를 이 작품의 구조상 문제로 지적하고, 신문소설의 모방이라고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단편

16) 임화, 「신인문학공쿠르 심사보고(下)」, 『동아일보』, 1939.7.6.

17) 바오로는 미국 신부가 바뀌면서 성경야학이 문단자 실직하게 된다. 바오로의 아내 마리아는 마테오네 집에서 샴바느질과 빨래를 하기 시작한다. 마테오와 마리아 관계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아 신부 귀에까지 들어가고 둘은 파면된다. 마리아는 사흘 뒤 자살한다. 바오로의 딸 영순은 엇그제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다. 바오로는 성당에서 예배 본 후, 강제적인 교무금 납부에 다툼을 벌이고 서둘러 귀가한다. 집에 오자마자 딸에게 밥을 주려는데 밥을 누가 훔쳐갔다. 딸을 위해 일거리를 찾아 헤매다가 요리집 앞에서 굶어 죽은 거지를 발견한다. 밥을 훔친 이와 죽은 거지를 두고 삶의 지향에 대해 고민하던 바오로는 성당에 찾아가 성함을 흠지지만 곧 신부에게 들키고 만다. 다음날 딸이 죽자 바오로는 예수 때문에 자기 아내와 딸이 죽었다고 말한다. 화가 난 신부는 바오로를 쫓아내고, 바오로는 자기 아내와 자식을 죽인 신부의 죄는 어떻게 할 거냐며 신부를 비난한다.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테마를 잡은 데에서 비롯된 문제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인공의 신앙상 혹은 심리적 발전의 필연성이 전혀 무시되었다는 게 임화의 평가였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적 객관적 수법을 배우는 작가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며 경계하기도 했다.¹⁸⁾

위의 두 작품을 제외한 8편의 작품은 이성 간의 애정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원대연의 『명화』는 실제 인물을 소재¹⁹⁾로 이성 간의 사랑과 비극을 그려냈다. 음악교사인 ‘나’는 직장동료 송별회에서 명화를 처음 만나게 된다. 하지만 어차피 술집에서 몸이나 파는 갈보라고 여기며 명화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하지만 술집을 몇번 드나드는 사이에 점점 가까워진다. 자신이 극단을 조직할 테니 명화더러 단원이 되어 달라고 하자 명화도 흔쾌히 승낙하며 둘은 각별한 사이가 된다. 명화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점점 커지자 ‘나’는 명화와 결혼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나’의 기대와 달리 명화는 청을 거절하며 내일 다른 술집으로 떠난다고 말한다. 명화는 ‘나’에게 자기 동생이 소학교 2학년인데 그 애가 성공해서 나이든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은 죽겠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다음날 기차 타고 떠나는 명화를 보내주고, 방과 후 산에 올라 명화를 추억한다.

정비석의 『귀불귀』는 봉건적 도덕에 매몰된 여인의 일생을 통해 봉건적 가치를 비판한 작품이다. 동은과 관규는 현숙의 아버지 밑에서 사숙을 한 친구였다. 동은은 현숙과 결혼하고 관규도 결혼을 했다. 관규의 아내가 죽고, 동은이도 죽자 관규는 의무감을 느끼며 현숙 모자를 도와준다. 진세의 학교 입학 문제를 논의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신발을 찾다가, 관규는 현숙의 소매가 제 어깨를 스치자 충동적으로 현숙의 어깨를 잡았

18) 임화, 「신인문학콩쿠르 심사보고3」, 『동아일보』, 1939.7.8.

19) 「입선작가들의 감상」, 『동아일보』, 1938.11.3. 석간 3면. “실제의 인물 명화, 아름답고 가련한 여자. 내 작품 『명화』는 파리하고 변변치 못한 것이지만 실제의 명화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다. 그리고 현숙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려 하였다. 하지만 현숙이 강하게 저항하고 둘은 어색하게 헤어진다. 관규는 봉건도덕의 그릇됨을 알지만 현숙의 선택을 존중한다. 10년 후, 진세가 결혼해서 딸과 아들을 낳자, 현숙은 손자에게 정주려는데 며느리와 사사건건 충돌한다. 현숙은 자신이 지금까지 자식에게 헌신한 일이 부질없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동안 관규가 일생을 자기 생각했음을 깨닫고 자신도 관규를 늘 생각했음을 그 제서야 깨닫는다. 이 작품은 봉건적인 이념을 신봉하던 현숙의 비극적인 일생을 그려냄으로써 전통적 가치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비록 작품에서 관규와 현숙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지만 현숙이 절대 드러내지 않았던 관규에 대한 사랑을 긍정적인 것이다.

이재춘의 「주막」도 이성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어려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은 순이는 14살 때부터 T시 제사공장에서 직공생활을 한다. 순이의 양어머니는 올 여름 대홍수로 가세가 기울자 동리 대지주인 박주사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읍소한다. 박주사는 순이의 몸을 노리고 부탁을 들어주며 순이네에게 주막을 차려준다. 양어머니는 직공생활을 하던 순이를 집으로 불러들여 술장사를 시킨다. 순이는 야반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혀 온 뒤로 체념하게 된다. 순이에게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던 수동이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느날 밤 수동이는 순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청혼을 하려는데 그때 박주사가 들이닥쳐 둘 사이를 방해한다. 박주사는 수동이에게 복수하겠다고 순이를 협박한 후에 겁탈을 시도한다. 그때 박주사의 마누라가 나타나 박주사의 머리채를 잡고 나간다. 뒤이어 양어머니가 등장하여 순이에게 사죄하고, 수동이가 순이를 안아주며 사건은 마무리된다. 학삼이와 동거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양어머니, 아내가 있음에도 순이의 몸을 노리고 가게를 차려준 박주사 등 기성세대의 타락상도 함께 보여준 작품이다.

조남영의 「익어가는 가을」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모심기에서 가을 수확까지 이르는 동안 청춘 남녀의 사랑을 그려낸 작품이다. 판돌과 이

뿐, 봉수와 구장딸 옥순, 용옥과 봉례, 복동과 문례가 서로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특별한 갈등 구조 없이 이들의 연애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했다. 전쟁이나 소작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배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들은 그러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포기하는 등 순응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한편 예선 입선작들은 청년들의 방향과 타락상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김이석의 『부어』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E중학교 조선어 교사인 ‘나’는 방학 때, 사진작가인 항규와 그의 부인, 그리고 사진모델인 등주와 함께 대동강으로 뱃놀이를 갔다. 그곳에서 잔뜩 취해 춤을 추며 놀다가 우연히 나체 사진이 찍힌다. 사진재료상 주인이 이 사진을 항규의 허락도 없이 서선사진전람회에 출품하여 특선을 수상한다. 개학 후 학교에 출근하나 문제의 사진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난다. 직장을 잃어 서울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T교수가 향가 주석을 도와달라하여 그 집에 기거하게 된다. ‘나’는 T교수의 집에 머물며 예의 사진 문제를 처리하고, 항규를 통해 등주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나’는 T교수 몰래 그의 부인과 밀애를 나누게 되며, 둘 사이 눈치챈 그 집 하녀인 호분도 ‘나’에게 수작을 건다. 10량만 주면 입다물겠다는 호분의 말에 울컥한 ‘나’는 호분의 뺨을 갈기고 그길로 등주를 찾아간다. 평양에 있는 산부인과를 모조리 뒤져 등주를 만난 ‘나’는, 지금껏 자기 삶은 정열이 썩어버린 부어(腐魚)같았으며 지금부터 등주와 함께 꿈의 세계로 마차를 달리며 정열을 뿌리고자 한다고 말한다.

이지용의 『화장인간』 역시 청년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준다. 계집질로 가사를 탕진한 호영은 동경 유학 동기인 박상우의 도움으로 회사에 입사한다. 하지만 부적절한 언행으로 퇴사하게 되고, 직장동료들에게는 사업 구상중이라며 허풍을 떠다. 그의 거짓에 속은 춘섭이가 1천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자 호영은 거짓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호영은 큐비와 결혼을 약속하고도 자신이 기거하는 하숙집 조카딸 순자를 꼬여 겁

탈한 뒤 매일밤 순자와 관계한다. 큐비와 신혼집에서 첫날을 보낸 다음 날 아침, 큐비의 친오빠가 찾아온다. 그는 바로 유학 동기인 상우로, 춘섭의 소식을 전해주며 호영을 비난한다. 다음날 아침, 순자의 음독자살 소식 듣고 우울과 공포를 느낀 호영은 술로 위안을 삼는다. 호영이의 괴로운 독백을 엿들은 상우는 호영을 동정하고 집으로 데려오지만, 호영은 자신의 위선과 허위를 깨닫고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다며 야반도주한다.

곽하신의 『안해』는 아내의 외도와 남편의 순정을 대조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무식하고 상식없는 아내의 처신에 대해 아무리 훈계해도 개선되지 않자 ‘나’는 없는 살림에 아내를 야학에 보낸다. 아내는 온갖 구실로 돈을 요구하더니 공부를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점점 싹싹해지는 아내를 보며 ‘나’는 아무 의심없이 만족한다. 아내의 거짓말이 갈수록 늘자 ‘나’는 아내 뒤를 밟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우는 장면을 목격한다. ‘나’는 사내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하지만 되려 그자에게 얻어맞고 기절한다. 혼자 집에 돌아온 ‘나’는 집으로 돌아올 리 없는 아내이건만 혹시 돌아온다면 점잖게 나가라고 말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눈은 아내가 입다 벗어놓은 치마저고리로 향한다.

한태천의 희곡 『매화포』는 가족간의 불화와 비극을 그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호를 아버지인 창수는 늘 안쓰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호의 어머니는 죽지 않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창수의 여동생 영애는 자신의 동창 명지를 창수와 엮어주려 노력한다. 하지만 영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수는 재혼 생각이 없어 명지의 청을 거절한다. 이때 창수 아내로부터 선물이 도착하고, 모녀는 창수의 결혼을 방해하려는 수작이라며 분노한다. 영애는 오빠 때문에 자기의 결혼도 무산되었다고 오빠를 원망한다. 정호는 낯선 이에게 과자 얻어 먹고 집에 돌아와 나중어야 그 이가 자신의 엄마인 줄 깨닫고 뛰쳐나간다. 자신을 만류하는 할머니와 고모를 밀치고 정호가 밖으로 나가자 어디선가 불꽃이 터진다.

본선에 당선된 두 편을 제외하면 예선에 오른 나머지 작품들은 남녀간의 애정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남녀간의 애정문제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작품의 경우에도 이성간의 사랑은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제의 파시즘 강화로 정치적 발언이 금지된 상황에서 애정에 관한 문체는 검열로부터 가장 안전한 소재였던 것이다. 일례로 제4차 무기정간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언문신문지면쇄신요항’(諺文新聞紙面刷新要項)²⁰⁾에 따르면 “주의적 색채를 유(有)하는 논문 소설 등은 이를 배격할 것”, “함부로 조선민족의 궁핍을 곡설하고 또는 민중생활의 비참한 상황을 나열함과 같은 폐가 없기를 기할 것”, “조선의 역사적인물, 산악, 고적 등에 관한 기사로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배일사상을 고조함과 같은 혐의가 있는 것은 이를 게재하지 말 것”, “기타 반국가적 또는 공산주의, 민족주의적 언론보도를 하지 말고 대일본제국의 신문으로서 그 사명을 다 할 것” 등 일제의 조선 언론에 대한 제약이 세밀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일절 금지되었으며, 조선 민중의 비참한 생활상도 그려낼 수 없었다. 이러한 언론 통제에 따라 신문에 연재되는 작품도 그 소재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인들은 남녀간의 애정문제 외에 청년들의 고뇌와 방황, 기성세대의 부패와 타락상을 다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작품의 대부분은 비극적 결말로 끝을 맺음으로써 희망적인 전망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들이 형상화한 인물들은 기성작가들이 그려낸 인물들과 별다른 변별점을 찾을 수 없었으며, 작품의 소재와 주제도 마찬가지였다.²¹⁾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

20)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사 卷一』, 1975. pp. 375-376.

21) 김남천, 「신세대론과 신인의 작품」, 『동아일보』, 1939.12.19. “**新人小說家들의 作品을 檢討하여보아도 그들에게 中堅이나 既成의 作家들이 가질 수 없고 또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새로운 精神의 價値란 것은 없었다.** 가장 力量있는 新人作家, 假令 金東里 氏는 李泰俊 氏의 世界에서 뚜렷한 精神의 世界로써 自身을 區別할 수는 없었고, 鄭飛石 氏는 李孝石 氏에 比하여, 金永壽 氏는 朴泰遠 氏에 比하여 **決코 새로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미치지 못할 만큼 濛色이 있는 것이**

간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현실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과는 유리된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일부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되지만 그마저도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심사위원들을 위시한 기성세대는 신인들에게 창조와 개성을 바랐으나²²⁾ 신인들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²³⁾ 오히려 강요된 개성의 요구에 신인들은 기성작가의 작품을 모방함²⁴⁾으로써 출구를 모색하기도 했다.

200여 편의 응모작²⁵⁾ 가운데 123편²⁶⁾을 검토한 예선 심사위원은 ‘신

事實이다.”(밑줄은 인용자)

- 22) 한식은 「문학의 위기와 신인의 각오(4)」(『동아일보』, 1938.10.29.)에서 신인들에게 개성의 발굴을 주문하며 예피고넨에 머물지 말고 독창적인 문학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 23) 신인들은 수상소감을 통해서 기성들의 지도 편달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단순한 감사인사 차원을 넘어 이들의 기성에 대한 입장과 작품 창작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하여 염려하시고, 격려 편달하여 주신 여러 어른께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어른의 기대에 어김이 없도록 좀더 부지런히 문학수업을 하려고 합니다.(한태천), 이번 입선이 생으로 하여금 문학에 대하여 새로히 인식을 굳게하는 동시에 한결 힘을 얻을 것만은 속일 수 없는 일외다. 자못 앞으로 제(諸) 선생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이재춘), 신인은 자기수양을 쌓고 기성 여러 선생님들을 배우고 하는 동안 단란한 문단이 이루어질 것이요(김계명), 행여 만흔 편달을 애끼지 말어주시옵소서.(정비석), 소생도 힘껏 공부하기를 귀사에 약속해 둡니다. 나이 어린 문학창조자들을 문학의 본무대에 올려서 훈련시킬 필요는 절대적입니다.(박산), 되던 아니 되던 열심히 공부하여 보임으로써 그 힘쓰심에 대하고저 생각하는 바이다.(곽하신) 「입선 작가들의 감상」, 『동아일보』, 1938.11.3. 석간 3면. 참고.
- 24) 임화, 「신인문학콩쿠르 심사보고3」, 『동아일보』, 1939.7.8. “『腐魚』는 『비둘기의誘惑』보다 훨씬 띠러진다. **李孝石의 어떤 種類의 作品을 읽는 듯하면서도** 李孝石의 小說에서만치 美感을 느끼지 못하는 理由도 이 때문이다.”(밑줄은 인용자) 김이석의 『부어』를 추천한 이가 이효석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신인들의 작품을 위주로 그 특질을 파악하는 데 그쳤으나, 신인문학콩쿨 입선자와 이들을 추천한 추천인과의 관련성도 추적할 필요가 있다.
- 25) 1939년 7월 5일 ‘제1회 신인문학 콩쿠르 당선발표’에는 200편의 작품이 모였다고 발표하며, 7월 6일 ‘신인문학 콩쿠르 심사보고(下)’에서도 200편 가까운 작품이 응모되었다고 언급했다.

인의 길을 막는 것이 기성문단의 그 무슨 고의이거나 한 것 같은 오해가 일부 신인 간에 행해진 때 기성문단에서 신인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기쁜 경향'이라며 '신인을 위한 이번 기획이 문단을 위해서나 신인을 위해 경향'할 일이라며 해당 공쿨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응모 조건이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신인이 도전했다며, 응모작을 통독하며 느낀 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조흔 傾向으로서는 作中人物들의 生活이 從來 既成作家들보다 豊饒한 것이다. 오늘날 既成作家들 作品에 나오는 主人公의 大部分이 性格的으로 生活로나 너무나 초라한데 比해서 新人들이 取扱한 作中人物들은 大部分이 直接 作品속에서 作者와 함께 生活한다는 點이다. 둘째 조흔 傾向의 하나는 作風으로나 材料로서나 從來의 것에서 새 길을 開拓하라는 野心이 보이는 것 셋째로서는 文學에 對하는 態度의 眞摯性이다. 조선말은 바로잡어 적게 되었다는 것도 기쁜 消息中的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勿論 個中 몇 作品을 이르는 말이고 大部分의 作家들이 犯한 誤謬中 가장 큰 것은 自己의 作品을 즐기어 通俗化하라는 點이다. 勿論 이 즐기어라는 말에는 語弊가 있을지 모르나 作中人物의 性格을 또는 事件에 一部 通俗作家들의 手法을 그대로 模倣했다. 이런 傾向은 特히 삼가야 할 點인 同時에 既成作家들도 自己의 通俗 傾向이 얼마나 큰 影響을 後輩들에게 주고잇으나 그것을 한번 되씹어 보아야 할 줄 안다. 이 責은 從來의 批評家들 自身이 通俗作品과 純粹文藝作品과를 區分하지 안흔데 잇는 것도 勿論이다.²⁶⁾

심사위원은 작품에 드러난 작중인물들의 생활이 기성작가들보다 풍요한 점, 작풍이나 재료가 종래의 것에서 새 길을 개척하려는 야심이 보인

26) 일선자(一選者), 「제1회신인문학공쿨 예선후기」, 『동아일보』, 1938.11.3. “社에서 내게 돌려진 應募原稿은 百二十三篇이었다.”

27) 일선자(一選者), 「제1회신인문학공쿨 예선후기」, 『동아일보』, 1938.11.3.

점, 신인들의 문학에 대한 태도가 진지한 점, 조선말을 바로잡아 적게 된 점 등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보인 작품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작가들이 작품을 통속화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며 통속화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내비쳤다. 작중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을 그리는 데 있어 통속작가들의 수법을 모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성작가들의 통속 경향이 후배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성작가들의 통속화를 지적했다. 예선후기에서는 이밖에도 주인공 성격의 독창성 결여, 원고를 매지 않고 보내는 등 응모자의 성의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예선 발표 이후 1939년 7월 5일, 본선 당선작이 발표된다. 1939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임화는 본선 심사위원을 대표해 심사 경과를 보고한다.²⁸⁾ 그는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작품들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만큼 이 콩쿨의 예선권 내에 드는 것만으로도 항례의 현상당선 수준을 따를 줄 알았는데 작품 수준이 놀랄 만큼 저열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견해를 보여 1석을 뽑지 말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고 밝혔다.²⁹⁾ 7월 6일부터는 개별 작품에 대한 심사평을 게재한다.

심사위원들은 작품의 소재나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는 표현이나 형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어」는 심리주의적 양식의 작품인데 주인공의 심리묘사가 간결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술가는 정신적 육체적 부패에 침닉하면서도 영롱한 성격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작품은 그러한 아름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주막」과 「익어가 는 가을」은 객관소설의 정석을 밝은 작품이나 구성과 박력, 인물과 묘사

28) 「제1회 신인문학콩쿠르 당선발표」, 『동아일보』, 1939.7.5. “이제 본 콩쿠르를 위하여 조직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경과를 임화 씨가 종합, 위원들을 대표하여 피력기로 되었다. 그러므로 이 일문(一文)이 임화 씨 개인의 논문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1939년 7월 6일 「신인문학 콩쿠르 심사보고(下)」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한다. “여기에 실린 임화 씨의 보고도 임화 씨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심사원 7씨의 위촉을 받아서 편이상 임 씨의 명의로 발표하는 것이다.”

29) 임화, 「제1회신인문학콩쿠르 심사회를 마치고」, 『동아일보』, 1939.7.5.

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막」은 삼각관계에서 소설이 구성되고 끝났으며, 작품이 통속성 외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했다. 「익어가는 가을」은 장면을 그리는 능력과 인물을 다루는 솜씨가 약간 취할 바 있으나 재래의 농촌소설을 넘어서지 못했고 구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화장인간」은 제목부터 소설의 품위를 말하는 듯하여 좋지 않았고, 예선 입선작 10편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작품³⁰⁾이라고 혹평했다. 「명화」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간 평가가 엇갈렸다. 유진오는 이 작품을 심히 낮게 평가했지만 임화는 이 작품이 필치가 화려하고, 상념이 분방하고, 인물을 다루는 솜씨가 곱다며 장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천인이 없었던 희곡 「매화포」는 작가의 전작보다도 월등히 떨어진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추천인이 없었던 「귀불귀」는 ‘장편소설의 경계를 읽는 것 같다’고 평가했으며, 「안해」는 문장에 대한 비평³¹⁾으로 일관했다.

본선 심사위원들 사이에는 비평관의 차이로 인한 이견도 있었다. 하지만 신인들의 작품 수준이 낮다는 평가에는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작품을 비평함에 있어 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을 취했다.³²⁾ 작품의 제목을 비롯해서 작품 구성, 인물의 성격과 묘사, 문장 표현 방식, 문체

30) 임화, 「신인문학콩쿠르 심사보고4」, 『동아일보』, 1939.7.9. “人物이 모두가 살지 안하고 文章엔 詩情도 描寫力도 缺如되고 事件은 作爲의이고 無理하고 作者가 作品을 爲하야 準備한 觀念은 아즉 文學의 根柢에 노힐 만한 것이 되는 것 같지 않다.”

31) 임화, 「신인문학콩쿠르 심사보고4」, 『동아일보』, 1939.7.9. “文章에 新奇함을 노린 野心이 잇는 듯 보이나 도대체 남에게는 勿論 自己에게도 알 수 없는 글은 쓰지 아니함이 마땅하지 안흔가한다. 長『센텐스』의 文章은 우리 文壇에선 朴泰遠 氏가 쓰다버린 形式인데 新人이 다시 써서 아니 된다는 법은 없으되 朴泰遠 氏의 어떤 作品과 같이 心理描寫에 置重하는 小說以外에 그리 適當한 文章이 아니다. 敘述의 인 文學일수록 『센텐스』가 짜르고 그 짜른 것이 簡明이란 조흔 效果를 내는 것을 記憶하기 바란다.”

32) 임화, 「신인문학콩쿠르 심사보고4」, 『동아일보』, 1939.7.9. “審査報告를 끝마치면서 나로서 遺憾된 것은 當日의 여러 意見을 充分히 傳하지 못한 點이다. 또 作品을 評함에 長點을 主로 列擧하지 못한 點이다. 長點을 일부러 찾으면 없지도 아니할 것이나 亦是 貴重한 것은 短點을 알아두는 것이리라.”

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형식적인 결함을 문제삼았다. 특히 ‘빠른 템포’와 ‘장면의 돌연한 변화’를 구조상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신문소설의 모방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는 예선 심사 때도 언급되었던 부분으로, 작품의 통속성과도 이어진다. 그리고 장편소설에 어울리는 내용을 단편으로 취급했다는 지적이나, 사건의 개연성 부족, 내용상 기존 작품의 모방에 그쳤다는 등 내용적인 측면도 지적했다.

심사위원들은 신인들의 작품을 비평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비둘기의 유혹』은 시정(詩情)에만 머물지 말고 산문성을 살려 완전한 소설적 전개를 보이라고 충고하였다. 『파계』에 대해서는 인물의 행동에 개연성을 확보하라고 조언하며, 객관적 수법을 배우는 작가들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어』의 심사평 말미에는 해당 작품이 발단과 종말 없이 시작하고 끝났으며, 오헨리의 발단도 종말도 없는 소설이 어떻게 수미일관하는지 연구해 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심사평에는 이러한 사례 외에도 작품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태도는 심사위원들이 신인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 결과 심사위원이 창작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을 띄게 된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신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앞서 예선후기에서는 작가의 성의 없는 태도를 문제삼았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이 작자의 그 전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명예를 위하여 이 이상 이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함이 조할 것 같다. 그동안 수 삼 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한 이로 이런 소설을 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³³⁾라며 특정 작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본선에 최종 당선된 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김영석과 김동규를 본선에 당선시킨 심사위원들 중에는 정작 이들을 콩쿨 예선에 추천한 이가 있었다. 바로 유진

33) 임화, 「신인문학콩쿠르 심사보고4」, 『동아일보』, 1939.7.9.

오와 임화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사위원은 신인들의 작품을 고의적으로 혹독하게 비평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신인문학콩쿨의 문단사적 의미

신인문학콩쿨의 문단사적 의미는 첫째, 신인의 등용문 역할을 한 점에 있다. ‘콩쿠르’의 사전적 정의는 ‘음악, 미술, 영화 따위를 장려할 목적으로 그 기능의 우열을 가리기 위하여 여는 경연회’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문단에 등단하지 않은 신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등단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정비석, 곽하신, 한태천은 이미 당선 경력을 인정받아 해당 콩쿨에 작품을 응모했던 ‘신인이 아닌 신인’ 작가였다. 하지만 해당 콩쿨 제도의 경우 이미 문단에 등단한 신진문인들로 한정하지 않고, 기성작가의 추천장을 받은 자에게도 작품 발표의 기회를 주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자격요건이 해당 제도의 특징이며, 그 의도는 작품 수준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중요한 점은 신인문학콩쿨의 공고문에 명시되었듯 해당 콩쿨이 ‘신인이 열망하던 문단에의 등용문’을 자처했으며 이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김영석, 김이석, 조남영 등의 신인을 발굴함으로써 신인의 문단 등단에 기여하였다. 제1석을 차지한 김영석은 이 콩쿨로 문단에 등단한 대표적인 작가다. 그는 이 콩쿨 이후 『동아일보』에 1939년 10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춘엽부인』을 연재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유진오의 추천으로 『월급날 일어난 일들』을 『인문평론』에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³⁴⁾ 김이석도 『부어』로 입선하여 작품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이후 1939년 평

34) 이경재, 「김영석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45호, 2010.

양에서 동인지 『단층』을 발간하여 작품활동을 이어가며, 월남 후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벌인다.³⁵⁾ 조남영도 「익어가는 가을」로 등단한다. 하지만 그는 이후 시조시인으로 활동한다.³⁶⁾ 제2석을 차지한 김동규는 김계명(金鷄鳴)으로 소개된 바 있다.³⁷⁾ 『동아일보』 1938년 1월 11일자 신춘창 작선편(上)에 의하면, 1938년 신춘문예에 「정문(旌門)」이 단편소설 부문 당선권 내에 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당 콩쿨 이후인 1940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동아일보』에 「도피」를 연재하였다.³⁸⁾ 물론 원대연, 이재춘, 이지용 등과 같이 콩쿨에 입선한 이후 지속적인 작품 창작활동을 찾기 어려운 신인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인문학콩쿨이 신인의 문단 등단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신인을 발굴하여 침체된 문단을 환기하고자 했던 신문사의 의도대로 나름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세대론에서 촉발된 신인론을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콩쿨 제도로 실현한 점이다. 1937년 11월 17일 학예면에는 신인 등용의 구체적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실린다.

新人登龍의 門을 열어주라!

내가 그길(文學의 길)을 研究하며 將來를 期待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事實上 朝鮮文壇에서 어디 新人의 登龍할 만한 機關을 지어주며 機會를 所與하여주느냐 말이다. 元來가 다른 나라와 달라 모든 惡條件 下에 노혀있는 “朝鮮文壇”이란 其自身이 極 悲慘한 境遇에 處하여있다는 것은 否定 못할 事實이나 그러타고 第二

35) 김은자, 「김이석 소설 연구」, 이화여대 박사 논문, 1992.

36) 문무학, 「조남영 연구」, 『우리말글』, 1991.

37) 「신인문학콩쿨 예선발표」, 『동아일보』, 1938.11.3.

38) 본문에 기술한 내용 외에 아직 학계에는 그의 인적사항이나 작품활동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바 없다. 해당 콩쿨에 추천한 이가 임화이므로 그 점에 착안하여 자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世-將來-를 期待하지 안홀 수는 없으리라 아니 그러키 때문에 더한 層 新人의 登場을 囑望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新人登龍의 어떤 具體的 組織을 結成한다는 것은 現 境遇 卓上空論에 不過하겠다고 생각 하나 좀더 文壇乃至 評壇에 있어 이 點에 對하여 생각하는 바 잇엇 으면 조켓다고 생각한다. 平北 北下洞 최상환³⁹⁾(밑줄은 인용자)

최상환은 조선 문단 그 어디에도 신인 등단을 위한 기관이 없고, 신인이 등단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제2세를 위해서 신인의 등장을 촉망한다며 신인등용의 어떤 구체적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조선에는 문학을 즐기고 또는 작가를 꿈꾸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의 포부를 문단에 기재하지 못한다며 “신문, 잡지 편집자여! 신인을 살리라.”⁴⁰⁾는 주장도 있었다.

1938년 5월 22일 학예면에는 「문단사업의 의의를 사업가에게 일언」이라는 유진오의 글이 실린다. 그는 조선의 부호가 교육사업에 투자한 사례를 문화적 자각의 향상이라며 경하한 뒤, 조선문화의 유일한 금자탑이 오 조선문화의 성쇠를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인 문학에 대해서는 등한시했음을 비판한다. 이어서 문학은 유일의 조선문화라며 조선 문단의 상황 지적 후 사회사업가의 궤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콩쿠르상, 개천상(芥川賞) 같은 문학상 제도를 창설하거나 문단사업을 위한 대규모의 재단법인 설립 등을 제안한다. 동아일보사의 신인문학콩쿨 시행은 이러한 신인예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신인문학콩쿨의 모집 공고가 끝나갈 무렵, 편집부는 ‘신인은 말한다’라는 기획란을 마련한다. ‘나의 문단 타개책’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기획에는 이운곡, 이서향, 김영수, 정비석 등의 신인들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이운곡은 신인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내적 요인이며, 세계적 불안과 회의,

39) 최상환, 「투서함(投書函)」, 『동아일보』 1937.11.11. 조간 4면.

40) 함남 최침반(崔針盤), 「신문잡지편집자에게 일언」, 『동아일보』, 1937.7.30. 조간 6면.

우리 문단의 제약성, 발표기관의 기근 등이 외적 요인이라며 우리 문단의 침체 원인을 분석했다. 우리 신인들이 이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며, 자기 억제적으로 된 원인으로 개성의 결핍을 들며, 자신의 개성을 살리지 않고 기성작가들의 뒤를 따르기에 거리낌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순전한 문학청년의 기분으로 돌아가 재출발을 해서 신인다운 의욕과 개성을 갖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맑시즘은 마약이며 관념론은 너무 지성적이라 균일적이 되어 추상성에 빠지기 쉽다며 프로문학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부적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문학잡지 간행과 신인을 위한 문학상 제도였다.

이런 文學雜誌가 나오고 다시 慾心을 부리자면(事實은 慾心이 아닐 것이다.) 文學賞같은 制度가 또한 꼭 나와야 할 것이다. 現在 沈滯된 文壇을 打開하고 發展시키자면 이런 것이라도 나오기 前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全文壇을 통해서의 文學賞 하나와 日本 内地의 芥川賞같은 新人을 目標로 한 文學賞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文壇의 空氣는 그야말로 一新될 것이 아닐까? 이런 文學雜誌나 文學賞 같은 것들은 우리 社會의 힘으로라도 能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不拘하고 벌써 말만은 늘 하여오면서 이때까지 實現을 못하고 잇음을 생각할 땐 우리 社會에 對하여 다시금 한숨이 어리워짐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勇氣를 내어 다시금 이곳에서 우리 文壇發展策의 하나로서 이 問題를 들지 안할 수 없다. 다른 것은 안 되어도 新人들을 相對로 하는 芥川賞式의 文學賞 하나만이라도 잇었으면 한다. (...) 力量잇는 新人들을 자꾸 登場시키기 爲하여 또는 現在 新人이라는 사람들에게 熱을 鼓吹해 주어서 力作을 다토아 쓰도록 하기 爲해서 이런 文學賞制度의 創設은 斷然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意味에서 이번 東亞日報社에서 規模가 좀 적은 感이 없지 안흐나 左右間 新人들을 相對로 新人文學콩쿨이라는 이들을 내걸은 데에는 感謝의 意를 表하지 안할 수 없다.⁴¹⁾(밑줄은 인용자)

그는 우리 조선에도 일본의 아쿠타가와상과 같은 문학상 제도가 창설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반복해서 주장했다. 그가 문학상 제도를 그토록 강조한 이유는 우리 문단의 침체현상을 역량 있는 신인들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신인들의 경쟁으로 조선 문단의 역작이 탄생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일보』가 신인문학콩쿨을 시행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서향⁴²⁾은 고리키의 희곡 『밑바닥에서』를 인용하여 조선 문단을 ‘루카’가 떠난 밤 주막에 ‘사친’들만 남은 상태로 묘사했다. ‘사친’은 피지컬로 자기를 존재시킬 수는 있으나 남을 구제할 수 없으며, ‘루카’는 몽상가며 형이상학자로 피지컬을 가지지 않았으나 피지컬의 모태를 가진 존재다. ‘사친’이 현재이며 존재라면 ‘루카’는 미래이며 가능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루카적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신인들에게 창조와 가능성의 모색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천재적인 나폴레옹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김영수는 희곡 분야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 신극은 고전을 갖지 못한 탓에 우리가 희곡을 창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극장 설립과 극작가의 창작 희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⁴³⁾ 끝으로 정비석은 경향문학이 이데올로기만 일삼다가 예술성을 잃었다면 그 후의 문학은 문학을 예술로만 이룩하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선문학에는 전통이 없고 자신만의 문학이 없어 외국문학의 의붓자식 노릇만 하기 때문에 문단이 침체되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그는 작가가 생활을 풍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인간을 탐색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는

41) 이운곡의 『나의 문단타개책』은 1938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동아일보』 학예란에 연재되었다. 인용부분은 1938년 9월 9일 연재분이다.

42) 이서향, 『나의 문단타개책』, 『동아일보』, 1938.9.10.~9.11.

43) 김영수, 『나의 문단타개책』, 『동아일보』, 1938.9.13.~9.17.

것이다. 그리고 우리 문학의 장래를 담당할 후진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⁴⁾

‘신인은 말한다’에 이어 이번에는 기성 평론가인 한식(韓植)의 글⁴⁵⁾을 실어 신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문단 침체의 원인을 객관적 정세의 불리로 파악하며 문인들의 창조적 생활을 어렵게 만든 현실을 지적했다. 문인들에게 경제적 기초를 주지 못하고, 발표기관도 부족할 뿐 아니라 신인을 육성하는 데에도 게을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인에게 생활적 조건이 유리하게 전개된 적이 없었다며 문학의 위기를 오히려 내부에서 찾자고 제안한다. 내부 성장을 위해 고뇌하고 회의하여 자기 개성 발굴에 힘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성 작가들의 이지고잉(easy going)한 생활태도와 문학의 매너리즘을 비판하며, 자부심을 넘어 오만한 신인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글을 맺는다.

엄홍섭⁴⁶⁾ 역시 지금까지 조선 문단 상황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 없이 이루어졌으며, 침체된 조선 문단을 위해서는 신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6년간 신춘현상문예를 시행했으나 이 관문을 통해 등단한 이는 수 명 이내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동아일보사의 신인문학콩쿨이나 조선일보사의 신인단편 게재는 좋

44) 정비석, 「나의 문단타개책」, 『동아일보』, 1938.9.18.~9.22. “요즘 새로 신문잡지에 서 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길을 열어준은 조선문학의 장래를 위해 축복할 일이거니와 이러한 기운은 현재의 쇠퇴에서 구출될 한 개 징조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신인만이 전적으로 쇠퇴한 문단을 부흥시킬 수는 없는 일이니 기성문인과 신인들의 그리고 양심적인 편집자의 참된 협력으로서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동아일보가 신인문학콩쿨상을 창안했다는 것은 실로 괄목할 일이 거니와 백척간두일보를 더 나아가 매수에 너무 강한 제한이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희원이 없지 않다. 결국 통틀어 말해 문단이 좀더 활기를 띠자면 작가가 자기형상을 게을리 하지 않는 동시에 세상을 좀더 넓게 그리고 바로 시찰해야 할 것이다. 문학의 사명은 오늘에 있지 않고 명일에 있다. 명목을 위한 오늘을 힘있게 꾸미는 문학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

45) 한식, 「문학의 위기와 신인의 각오」, 『동아일보』, 1938.10.26.~10.30.

46) 엄홍섭, 「문예시평(3), 신인에 대하여」, 『동아일보』, 1938.9.16.

은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신인과 기성문인의 현 문단 진단은 침체된 문단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인 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결론을 공통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신인문학콩쿨 시행의 정당성을 보장하게 되었다.⁴⁷⁾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문단에서는 기성과 신인을 막론하고 ‘아쿠다가와상’과 같은 문학상 제정의 요구가 있었다. 검열 등 일체의 제약에서 벗어나 문단을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와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문학상 제도로 구체화되어 분출된 것이다. 기성 작가에게는 심사자의 권위를, 신인작가에게는 예술성을 인정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성과 신인의 이해에 모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로 콩쿨이 선택된 것이다. 그리고 신문사 입장에서도 콩쿨 제도는 흥행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였다. 『동아일보』는 이미 음악과 연극 분야에 대한 콩쿨을 시행한 경험이 있었다. 1937년 8월 14일 제1회 서선유행가 콩쿨 대회가 그 사례이다. 이 콩쿨은 진남포 음악구락부와 대동시계점이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 진남포지국이 후원했다. 이듬해 2월에는 연극 대중화를 목적으로 제1회 연극콩쿨대회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1회 신인문학콩쿨을 시행한 것이다. 물론 지속적인 시행을 천명하며 시작했지만 1회에 그친 점은 이 제도의 가장 큰 한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내부에 있지 않고, 신문의 강제폐간이라는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콩쿨 시행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는다.

47) 이러한 면모는 1938년 11월 3일, 신인문학콩쿨 예선발표 특집 기사에 실린 ‘콩쿨에 보내는 찬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남천은 신인으로 하여금 문단의 침체를 타개시켜 보자는 생각은 우리가 항상 되풀이하던 방책 중의 하나인데, 각 신문잡지기관에서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자극을 주고자 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금년 중 우리 문단의 가장 큰 사건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기영 역시 경기적 본능으로 인간사회는 항상 발전하는 창조적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귀사의 문학콩쿨 창설은 가장 시대적 요구를 잘 타진한 것이라며 이를 매년의 계속사업으로 하여 명일의 조선문학에 큰 공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참고문헌

【자 료】

『동아일보』.

동아일보사(1975), 『동아일보사사 卷一』.

【논 저】

김석봉(2006), 「식민지 시기 『동아일보』 문인 재생산 구조에 관한 연구」, 『민족문학사 연구』.

_____ (2004),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제도화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6.

김영민(1999),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김은자(1992), 「김이석 소설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김춘희(2001), 「한국 근대문단의 형성과 등단제도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문무학(1991), 「조남령 연구」, 『우리말글』.

방기중(2004),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해안.

손동호(2016),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연구」, 『근대한국학연구』 21.

_____ (2014), 「『동아일보』 소재 ‘독자문단’ 연구」, 『한국민족문화』 5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2004),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해안.

이경재(2010), 「김영석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45호.

이희정(2011), 「1920년대 『매일신보』의 독자문단 형성과정과 제도화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33.

_____ (2011),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연구(1)」, 『어문학』 112.

_____ (2011),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연구(2)」, 『현대소설연구』 48.

전상숙(2004), 「일제 파시즘기 조선지배 정책과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124.

전은경(2006), 「1910년대 『매일신보』소설 독자층의 형성과정 연구」, 『현대소

설연구』 29.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2005), 『일제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성격』, 경
인문화사.

원고 접수일: 2016년 9월 29일

심사 완료일: 2016년 10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0월 26일

1930年代『東亞日報』新人文壇 研究

— ‘新人文壇コンクール’を中心に

孫東鎬*

1930年代に日本は強圧的な政策を展開した。だから朝鮮の文壇は低迷した。これらの文壇の低迷を克服しようとする時代の要請に応じて、新人待望論が台頭した。このような状況で、東亜日報社は新人作家らの作品を発表できるよう、紙面を提供すると‘新人文壇コンクール’を施行した。新聞社内部的には、文芸面拡大のための短編小説の供給が切実な状況であった。これらの背景から試圖されたコンクール制度は、文壇史的に當時文壇で展開された世代論と直接的な関連性があるという点でも重要な研究主題となる。

コンクールに入選された作品は、主に異性間の愛情の問題と青年たちの彷徨と墮落を表現した。一切の政治的発言が禁止された状況下で検閲を意識して、安全な素材を取ったものである。既成作家は新人に作成さと個性を求めた。しかし、新人は既成作家の期待に応えられなかった。むしろ新人は既成作家の作品を模倣することにより、出口を模索した。既成作家は作品と作家の問題点を指摘する一方、創作方法を指導したりした。このような態度は、既成作家が新人よりも優位にあるという認識を反映したものである。審査員は、新人の作品を意

* 延世大學校 人文藝術大學 國語國文學科 講師

図的に厳しく批評することで、自分たちの權威を掲げた。

‘新入文学コンクール’の文壇史的意味は新人の登竜門になったという点にある。金永錫、金利錫、曹南嶺を発掘することにより、新人の登壇に寄与した点も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事実である。この他にも世代論で触発された新人論を現実的であり、具体的な文壇制度で実現した点である。低迷した文壇を打開するために、新人を育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文壇の要求を公論化し、これを受け入れ、コンクールという形式で制度化したものである。

